

제 11 호

2013년 상반기
(1.1 ~ 7.2)

의정소식

ULSANBUK-GUCOUNCILNEWSLETER

구민 복리증진과 복구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Ulsan Buk-gu Council Newslettr



2013. NO 11. CONTENTS

-
- 04 인사말
 - 05 의원현황 및 정수
 - 06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7 의정활동
 - 제138회 임시회
 - 제139회 임시회
 - 제140회 제1차 정례회

 - 09 2013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 15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 19 결의안,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 37 사진으로 보는 의정
 - 39 의회민원상담실 이용안내
 - 40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



표지설명 : 신천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발행일 2013년 상반기 제11호
발행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위원장
편집인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과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전화 052-241-8975
홈페이지 <http://council.bukgu.ulsan.kr>



존경하는 19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윤치용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2013년 새해를 맞이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어느 덧 햇살이 찬란하게 거리로 쏟아지는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쉽없이 달려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남은 날들에 후회가 없도록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7월에 제5대 북구의회가 출범하여 어느 듯 3년이 지나고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5대 북구의회는 저를 포함하여 전 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구성되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젊은 패기와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북구의회에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셨고 지난 3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낮은 자세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와는 상호 역할은 다르지만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런 북구” 건설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된 주민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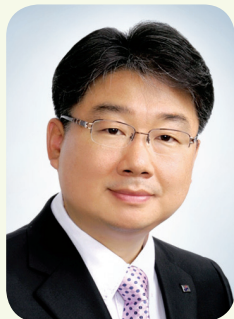
앞으로도 북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치용**



제5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성 명 윤 치 용
연락처 010-5231-7321
선거구 농소 2·3동

“북구의 행복한 변화 좋은 일꾼으로 기억 되도록 주민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부의장

성 명 이 수 선
연락처 010-2833-1929
선거구 농소 2·3동

“살기좋은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성 명 강 진 희
연락처 010-8610-4748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살기좋은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안 승 찬
연락처 010-6587-1287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늘 주민과 함께하는 변함없는 봉사대장이 되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이 흥 겈
연락처 010-2950-3763
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주민의 삶이 행복하도록 복지북구의 새로운 행복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정 윤 석
연락처 011-835-6035
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살기 좋고 행복한 북구를 위해 부지런하게 뛰겠습니다”



의 원

성 명 이 혜 경
연락처 010-9448-1364
선거구 비례대표

“북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계	가선거구 (농소1·강동·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의원정수	7	2	2	2	1

북구의회 연혁 및 조직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ULSAN Buk-gu Council History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북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의회조직



제138회 임시회 개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식이 7월 2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윤치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 윤종오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윤치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와 제4기 민선 구정이 4차 년도를 맞이하는 해로써 구정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의회에서도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구정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여 주민을 위한 의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제138회 임시회는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강진희의원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의결, 이해경의원의 「시행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북구」, 정윤석의원의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이 이루어졌다.

제139회 임시회 개최



2012회계년도 결산감사 위원선임, 2013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심의

제139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윤치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구의회가 구민들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구민의 대변자 역할 수행은 물론 정책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것” 과, 특히 “이번 회기중의 추경예산안 심의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하였다.

제139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한 조례안 22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수선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암베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심의결과 보고를 통해 “심의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철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강진희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하여 북구청의 정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제140회 제1차 정례회 개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 심의

제14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12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조례안 6건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회기중 이수선부의장은 옥동농소간 도로구간 내 천마산 등산로 통과 Box 개설 요구 관련 구정 질문을, 이혜경의원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였다. 정윤석의원은 동천강의 보존·정비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승찬의원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의원간 질의·토론 후 의결되었다.



| 소회의실 조례안 심의장면 |

회기운영 현황 (2013. 1. 1 ~ 7. 2)						
구 분	계		임 시 회		정 려 회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회 수	일 수
2013년	3	41	2	28	1	13

안건처리 현황												
회 수	일 수	계	예산안	결 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건의안	결의안	보 고	질 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138회 2013. 2.19~3.4	14	20			12	1		1	1		2	3
제139회 2012. 4.23~5.6	14	27	1		22	1				1	1	1
제140회 2013. 6.20~7.2	13	16		1	6	1		1	1	2	1	4
합 계	41	63	1	1	40	3		2	2	3	4	7

제138회

임시회 안건처리 | 2013.2.19 ~ 3.4 (14일간) |

-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 미적용, 사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 등 위임사항을 일제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 상설화에 따른 규정과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고, 추진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조례 시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명촌어린이도서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 이 일부 개정되어 수수료 금액을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2011. 3. 29)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2. 7. 9)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 등 시·도로 환원된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협의회 운영,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지정, 수수료 감면 등 옥외광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미관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 수정가결
 - * 공동주택의 지원에 있어 적용범위 조정과 5년 이내 지원 제한 예외대상, 우선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있어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 부결**
 - *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있으나 각동에도 주민복지협의회를 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발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추가 및 주민자치위원 구성, 연임 규정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제139회

임시회 안건처리

2013. 4. 23. ~ 5. 6 (14일간)

-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주민참여과 업무에 동행정업무 총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과 업무 중 문화의집 지원을 삭제하여 동행정업무 총괄에 포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인력확충 보완지침'에 따른 자연감소인력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증원하고, 중기 지방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력증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함. 조례에는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보건소장,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위임사무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폐지(2011.12.16.)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기금에서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지급 중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3.01.09)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수당 보전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심의보류

*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는 동 고유사무이며, 동마다 여건의 차이와 자치 역량을 고려해야 하는 조례이므로 조례안 제17조제7항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전동에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인적자원이 부족한 일부 동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재의를 요구함
-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지역주민들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목욕시설(중산행복샘)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지역사회에 지식과 정보제공 및 독서진흥 등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작은도서관 운영 등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 원안가결

* “울산 북구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통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독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3. 1. 1.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및 조정금의 산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설치되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선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등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2012.2.3)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를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 유통업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던 간이급수시설 관리 업무가 울산광역시 소관으로 이관되어짐에 따라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조례를 폐지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주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수선·이혜경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안건처리

2013.6.20 ~ 7.2(13일간)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 **원안가결**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상황 관리 기능강화를 위하여 부서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의보류**
 - *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선도·상담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동 단위에서 해결하고, 지역내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함으로써 이웃사랑 나눔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수선·이홍걸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장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혜경의원 발의) ▶ **원안가결**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



「조례입법연구회」 운영

01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연구하는 의정상 확립

북구의회는 전 의원들이 입법활동강화를 위해 「조례입법연구회」를 2010년 11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월회 정기적으로 의원이 작성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연구 및 토론을 통해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이는 의원 단독으로 연구한 조례의 법리적 오류 및 집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의견교환을 통하여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보다 더 완벽한 조례안 제·개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북구의회 강진희 운영위원장은 “최근 북구의회 의원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 제정 및 수정이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조례입법연구회 운영을 통하여 조례의 미비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02

민족고유의 명절에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북구의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고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자, 2월 6일 관내 복지시설인 양정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평화노인요양센터, 연암 꾸러기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1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생필품을 설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 의원들은 먼저 양정동에 위치한 양정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본 후 가전제품을 전달하고, 이어 연암동에 위치한 평화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린 뒤, 마지막으로 연암 꾸러기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가전제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도록 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시설이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위문품이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함께 따뜻한 설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03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 「제5회 지방의정보사대상」 수상 발로 뛰는 의정활동의 성과로 수상영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이 2월 26일 대전광역시 선샤인 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13년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5회 지방의정보사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는 대전광역시 영흥철 시장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인배 회장 및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정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북구의회 윤치용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온 노력뿐 아니라, 특히 주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실현에 이바지한 공'으로 제5회 지방의정보사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별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교류 및 지역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차원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조직된 단체로서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한 차원 높였다고 평가 받고 있다.

04

무룡산 환경정화활동 실시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기위해 앞장서



북구의회는 1/4분기 행정현장 체험활동으로 2월 27일 무룡산 정상 등산로변에서 쓰레기 수거 및 산불조심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는 관내 시설 및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자원봉사 및 현장체험활동을 펼침으로써 주민들을 직접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새봄을 맞아 많은 주민들이 찾는 무룡산 정화활동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통하여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행정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체험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북구의회는 앞으로도 분기별 1회 이상씩 현장에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현장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안양시의회 북구의회 방문견학

05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모델이라 평가받는 주민참여예산제 벤치마킹 목적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손정욱) 의원 4명은 4월 18일 북구의회를 방문하여 북구의회 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항들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안양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의 북구의회 방문은 국내 비교시찰의 일환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시설 및 의회를 방문·견학하여 의정활동 정보수집과 교류를 위해 북구의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특히 안양시의회 의원 일행은 우리 북구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하여 견학 및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하였다.



중국 비성시 국제교류대표단 북구의회 방문

06

세계와 교류하는 북구의회

중국 안장성 비성시 국제교류 대표단이 5월 10일 북구의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북구청의 국제교류일환으로 비성시 인민정부 이화민 부시장과 공무원 및 기업체 대표 등 모두 7명이 5월 9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북구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일정동안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10일 울산쇠부리축제 개막식에도 참석하여 축하를 건넸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비성시는 1,277㎢ 면적에 인구 97만여명이 살고 있다. 지난 2011년 비성시의 방문을 시작으로 두 도시 간 교류가 본격화됐으며, 북구는 지난해 9월 윤종오 구청장과 윤치용 의장, 이수선 부의장이 중국 비성시를 방문,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실질적인 협력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과 함께 보는 의정활동

07

재활용선별장 체험활동

소중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에 조금만 더 관심을



북구의회 의원들은 6월 20일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중 북구 재활용선별장을 찾아 재활용선별작업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재활용홍보관에서 재활용품 수거체계와 처리방식,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후 재활용 선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재활용선별체험을 실시하였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재활용품을 직접 선별하면서 “현장에서 선별작업을 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걸 느꼈다.”며 재활용품 배출 시 주민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자원이 올바르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길 당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08

북구의회 지역내 우수시설 및 산업현장 견학 실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험하는



북구의회는 6월 27일 제14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현장활동의 일환인 지역내 우수시설 및 산업현장 견학으로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 승선체험 및 현대자동차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크루즈선 도입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남구의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 승선체험을 통해 강동해안관광사업의 지향점을 모색해보고, 우리구의 대표적인 기업체인 현대자동차 견학으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간 2교대제 시행으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의결일 : 제138회 임시회 (2013. 3. 4.)
- 결의안 발의자 : 강진희 의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제안으로 지식경제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6일 '산업기술문화공간 건립 연구용역' 설명회를 갖고 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기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용역 결과, 박물관은 전시시설을 비롯해 교육·연구, 교류·문화, 수장·보존, 산업기술체험 공간 등으로 꾸며지며,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제품 발표회장 같은 공간도 마련된다.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10만㎡(약 3만평) 정도이며, 건축비 4천500억원 외에 부지매입비 및 산업기술 유물 수집 등에 5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간 240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50만명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뮌헨 '독일 과학기술박물관' (연면적 6만㎡)을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다.

특히, 이 사업의 중장기 경제효과는 약 11조원에 달해 건설 투자액 1조원 외에도 박물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관람객(연 300만명 가정) 소비지출 7조7,000억원, 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국내기업의 홍보효과 1조 8,000억원 등으로 예상된다.

박물관 건립지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이며, 현재 울산을 비롯해 대구, 포항, 구미, 창원 등지에서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지난 1월 16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포항시도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내에 박물관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 3만평이 확보된 점과 2014년 KTX 개통, 3만점에 이르는 포스코 역사관의 전시물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미시도 글로벌 IT산업과 전자산업의 거점 등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울산시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2월 13일 "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으며, 30만명이 참가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박물관 울산 유치 공약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의 산업박물관 유치 움직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완구 전 시장 시절인 2000년, 시는 산업수도인 울산에 산업박물관을 세워야 한다며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 전국에서 울산 입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까지 도출했다. 울산은 51년 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눈부신 성장을 주도해 왔고, 반세기 동안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이른바 '3대 트로이카'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면서 국내 최대 공업도시로 발전했다. 우리나라 산업전진기지에서 살아온 울산시민은 조국 근대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다.

이에 산업역사를 주제로 하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반드시 산업현장인 이곳 울산에 건립되어야 한다.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우리나라 근대산업화의 메카인 울산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울산은 경북의 포항제철, 구미공단과 경남의 창원공단, 사천 항공산업, 거제 조선산업 그리고 전남의 광양 제철산업까지 아우르는 동남부 산업 대단지의 중심에 서 있다. 울산은 항만과 공항, 철도(KTX역), 고속도로 등이 전국으로 뻗어있어 교통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외국바이어와 기술자들이 수없이 방문하여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도 용이하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와 신라시대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경주를 끼고 있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울산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들어서기에 최적지이다.

산업문화는 고유한 울산만의 역사이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는 산업수도 울산의 과거 5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극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실제 생산이 일어나는 현장성과 연계한 교육, 산업, 기술 등 복합 문화콘텐츠로써 울산의 살아있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연간 300만명의 산업관광객과 동해안 관광벨트 구축의 중심선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 또한 누구보다 앞서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북구청이 주도하여 다른 타구보다 월등히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으며, 주민들 또한 박물관 부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를 위해 19만 북구 주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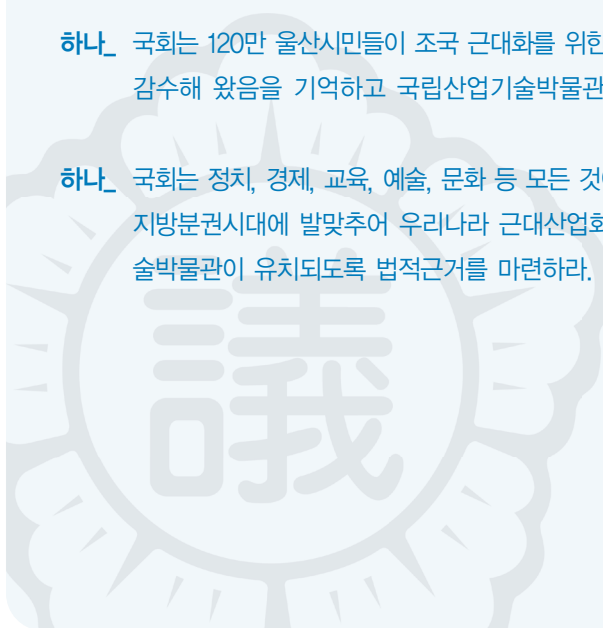
하나_ 정부는 1999년 정부와 대통령의 3차례에 걸친 공업역사박물관 건립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_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역사를 주제로 하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있어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이 필수적이며, 울산이 다른 후보도시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라.

하나_ 정부는 산업발전의 역사와 역량, 눈부신 성과, 접근성, 상징성, 산업문화 연계성 등에 있어 울산이 최적지로 판명(국제 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연구보고서) 되었음을 인정하라.

하나_ 국회는 120만 울산시민들이 조국 근대화를 위한 산업 전진기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써 울산이 그 역할과 희생을 감수해 왔음을 기억하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울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_ 국회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다가올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근대산업화의 메카이자 한국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유치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명확한 진상조사와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촉구

- 본회의 의결일 : 제140회 제1차 정례회 (2013. 7. 2.)
- 결의안 발의자 : 안승찬 의원

지금 온 나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대통령 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로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과 정상회담 발언록 여당 유출 등

실질적인 선거개입에 대하여 각계 각층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나서고 있다. 또한 전국 각계 각층의 시국선언과 전국적 촛불집회가 개최되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들 다수가 “불법 선거개입·국기문란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고, 국가기관의 잘못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65%를 넘었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과는 달리 경찰은 수사를 축소·은폐하여 발표하고,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여론을 덮으려고 대통령 기록물인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행위로 국민적 분노와 요구를 높였다.

지난 6월 14일 발표된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사건 수사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 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대학생들 필두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서울대·한양대 등 대학교수들, 예비 법조인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까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규탄과 수사기관의 부실 축소 수사를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은 209개 시민·사회단체에서 6월 28일부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 촛불집회”를 열었고, 전국적으로 기자회견 및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 여론을 조작하고, 전 방위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정치를 단행한 것과 경찰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축소·은폐하여 발표하고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며 탄압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이자 역사를 군사독재 시대로 돌리려는 행위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여론을 덮고자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한 것은 국가 헌정질서를 유린함은 물론 국민적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인 것이다.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정보 권력기관이 오히려 국가를 혼란케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그 권력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여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국정조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은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며, 국민이 직접 나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 하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된 입장과 그 실상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이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경찰의 부실한 수사 발표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에 대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뜻을 함께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_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성역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경찰의 노골적인 축소 은폐 시도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대통령 발언록 공개 등 모든 반민주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른 책임자의 처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_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하여 그 진실과 입장을 국민 앞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막강한 권력과 조직력, 정보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인 만큼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 앞에 약속하여 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이며,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모습이어야 한다.

서.면.질.문

Ulsan Buk-gu Council Newslett



- 질문의원 : 안승찬 의원
- 질문일시 : 2013. 2. 18.
- 질문요지 : **오토밸리로 (송정 IC ~ 농소2 IC) 개설에 관련하여**



울산 북구 주민의 숙원이자 지역 최대의 현안인 오토밸리로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 2016년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토밸리 도로 연결은 북구의회와 시의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지역대책위원회 구성과 서명운동, 중앙 정부에 대한 다양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특히 5만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은 오토밸리로 연결에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토밸리로 연결에 따라 지난 2013년 2월 13일은 농소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들에게 기본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오토밸리 개설과 관련하여, 농로문제와 도로에 인접한 밭과 논 의 문제, 주민들이 통행하고 등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연결통로(박스) 문제, 자전거도로 문제(화봉 IC~울동삼거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같은), 지난해 있었던 오토밸리로 붕괴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주민 생활과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질의하고, 제기한 문제는 오토밸리로 설계에서부터 반영하여 개설공사에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제기한 주민들의 제기를 소홀하게 되면 끝없는 민원과 공사가 끝난 후에도 새로운 예산 투자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오토밸리로가 울산광역시와 LH공사(화봉 IC~송정 IC)에서 실시하는 공사이지만 우리 북구에 개설되는 공사인 만큼 주민들의 편익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북구청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화봉 IC~송정 IC~농소2 IC 오토밸리로 개설공사에 우리 구가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며, 서면을 통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_ 오토밸리로(화봉IC~송정IC~농소2 IC) 개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장 답변

2013년 2월 13일 시 도시개발과 주관으로 농소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를 통하여 도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현재 설계 반영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부서인 시 도시개발과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_ 구체적으로 도로 개설 주변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토지 보상에서부터 농로, 도로에 인접한 농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답변

사업시행 부서인 시 도시개발과에 확인한 결과 도로개설 구간 주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경지 단절구간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통로박스과 부체도로가 설치 계획되어 있으며, 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올해 4월부터 추진 예정으로 보상협의회 개최 등 보상이 책정과정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원활한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_ 오토밸리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룡산, 동대산의 등산로를 관통하는 것으로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통로 박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답변

사업부서에 확인한 결과, 동대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 통행이 가능하도록 교량과 통로박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또한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통로박스 및 교량이 설치될 부분에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충분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넷째_ 오토밸리로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것은 윤종오 구청장이 강조해 왔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화봉에서 울동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구간도 현대자동차와 효문공단 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매곡, 신천, 호계 등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많고, 또한 우리 구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여 자전거 출퇴근을 장려하는 것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구 정책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의견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답변

오토밸리로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제가 구청장 취임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사항이고 그 결과 화봉에서 울동까지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출퇴근시 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설되는 구간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여부 검토 후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있으나,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섯째_ 지난해 송정동 오토밸리 도로가 붕괴되어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 구간은 송정저수지와 하천이 많은 지역이라 각별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답변

사업부서에 확인한 결과 주변 소화전 등을 일제 조사하였고 지하배수의 경우는 상세검토 후 맹암거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또다시 보강토 옹벽 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 부터 면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_ 가칭)송정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수변공원과 동해남부선 철길과 역사, 오토밸리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종합적인 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답변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송정수변공원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송정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이번에 개설되는 구간과 연계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오토밸리로가 개설 완료되면 송정수변공원과 송정역 이용시 더욱 편리해 질 것이며, 이용자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질.문

Ulsan Buk-gu Council Newslett



- 질문의원 : 윤치용 의원
- 질문일시 : 2013. 3. 14.
- 질문요지 : 지역 정주환경 조성과 대책 등에 대하여



우리 구의 행정 권역은 울산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농소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권역은 인접 지역인 경주와도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경주와 인접한 농소2동, 농소3동의 경우 북구 지역의 다른 동과는 달리 대규모 아파트 밀집단지로 되어 있어 인구분포도 많고, 문산공단과 외동 입실 일원 일반산업단지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북구 주민들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구와 직접 경계가 맞닿아 있는 경주시의 도시 발전 과정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경주시에는 우리 구에서 멀지 않은 외동읍 소재에 국민임대주택과 구태화방직 부지에 4,500여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외에도 경주 외곽지역의 보금자리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주 건천 화천리 일원 137만㎡에는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 역세권의 신도시 개발계획안이 확정되어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2014년 준공 예정인 울산~경주~포항간 고속도로가 완공된다면, 우리 지역과 경주시와는 더욱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북구 지역과 연접한 경주시 외동 일원 등에 보금자리 도시 형성으로 인하여 19만에 달하는 우리 북구 주민들이 일부 경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습니다. 국도7호선을 중심으로 하여 경주시 외곽 일원의 산업단지 조성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역을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여건 또한 급변해질 것입니다. 중소기업들마저 경주시 외곽 산업단지 등으로 빠져 나간다면, 우리 북구 경계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신규 공장 설립 과정에서 우리 지역을 외면하게 된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의 세수 확보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인접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의 지역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지역은 아름다운 산과 편백 숲, 천혜의 강동 바닷가, 지역 특산물 단지, 선사 유적 등이 어우러져 있음에도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는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울산광역시 체류형 관광전략 수립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도 북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스치고 가는 단순 관광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숙박과 연계되어 체류·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지역의 관광 미래를 가꾸어 나가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대표적 기업이며 세계적 기업이기도 한 현대자동차가 주간 연속 2교대를 창사 46년 만에 시범운행을 거쳐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근무형태 변화는 노동의 의미를 새롭게 변모시키고, 여가시간 활용 등 사회적인 변화를 함께 수반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도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퇴임을 앞 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에는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근 중구는 참살이 숲으로 유명한 입화산 일원에 오토캠핑, 야영데크, 체험장, 학습장, 야외공연장 등 캠핑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전통한옥에 대한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전통한옥에 대한 숙박체험은 관광객 유치사업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주 외곽 일원에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함은 물론 공장 설립 시에도 어려움 없이 중소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주시 차원에서 많은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한발 앞서서 지역의 정주환경 조성과 주민 편익,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지역 주민들이 향후 경주시 일원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머물고 싶은 도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주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장 답변

우리 구는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출범하였고, 출범당시에는 도로, 문화, 복지 등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19만의 인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쾌적한 주거문화도시가 형성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미래의 희망과 꿈을 창조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500여 직원들은 “누구나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 “살고 싶은 1등 도시”에 걸 맞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내실을 다지는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①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구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으로,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과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② 쾌적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내륙과 해안을 아우르는 생태휴양 복합도시로 동대산과 무룡산을 주축으로 하는 생태휴양공간과 천혜의 해안 자연경관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살아 숨쉬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에,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 학교공원화사업, 도심벽면 녹화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공간을 계속 창출하고 있으며, 동대산 숲길, 천마산 테마 등산로 조성, 송정수변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동감 넘치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복구 건설”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③ 문화·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입니다.

내실있는 문화·체육행사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쇠부리축제, 기박산성 의병제, 무룡예술제 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권역별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 및 운동장을 조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하겠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체육 활성화로 문화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④ 교육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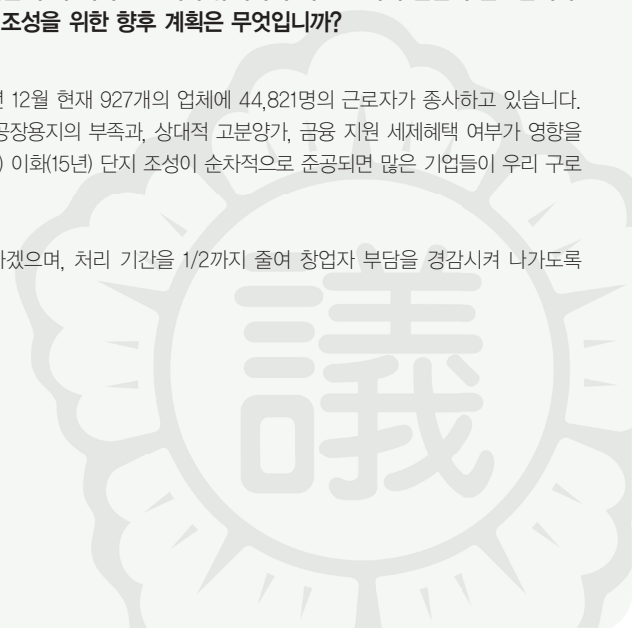
도서관이 가장 많은 우리 북구는, 교육명품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경비지원사업과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 교육진흥재단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인재 육성과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구주민자치대학, 작은도서관 활성화, 북구의 책 선정 사업,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 사이버 외국어교실 운영 등 눈높이 맞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평생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들이 경주시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거나,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구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답변

현재 관내에는 국가미포, 매곡, 중산, 모둘화, 달천공단이 소재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현재 927개의 업체에 44,821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 소재 일부 중소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 사유는 공장용지의 부족과, 상대적 고분양가, 금융 지원 세제혜택 여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조성중인 중산2차(14년) 매곡2, 3차(14년) 이화(15년) 단지 조성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구로 유입될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공장 등록이나 창업 처리 기간을 최소화 하겠으며, 처리 기간을 1/2까지 줄여 창업자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전담 노무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상담 및 기업 진단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경영 컨설팅은 물론 직원 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서 고용, 노사안정 등 사회공헌도가 높은 우수기업과 향토기업을 적극 발굴·시상하여 근로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좋은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울산광역시와 협조하여 기업의 역외 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_ 우리 지역 내에도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류·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청장 답변

관광이 일상의 여가생활로 된 지금 우리 구에서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강동사랑길'을 개통하여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와 문화의 스토리가 숨쉬는 Green Road 체험을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토성도예를 통한 '도자기 체험', '대게잡이 체험', 해녀의 집을 활용한 '해산물 체험', 인문학 서재 몽돌을 활용한 '인문학과 강동바다 해맞이프로그램' 등 강동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가족형 문화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당사해양낚시공원을 가족휴양지로 개발하여 바다와 가족이 함께 만드는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해양레저 체험마을 조성사업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지역 문화 콘텐츠인 박상진지사 생가, 관문성,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선조의 숨결이 느껴지는 문화와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제고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가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_ 현대자동차 주간 연속 2교대 시행 등 근무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우리 지역 내에도 캠핑장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지역 주민들의 수요 파악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 내 캠핑장 조성에 대한 계획과 의견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답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오토캠핑장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파악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지만, 현대차 주간 연속 2교대 시행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레저욕구가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수요파악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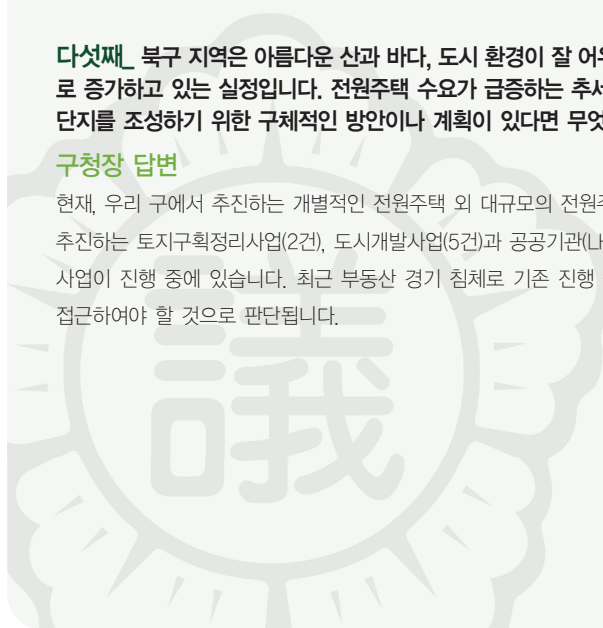
오토캠핑장 조성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따릅니다. 우선, 부지선정에 있어서 캠핑장조성에 필요한 면적만큼 국공유지 확보뿐만 아니라, 제반시설을 갖추고 진입로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양정동이나 어물동의 경우 오토캠핑장으로서의 불리한 입지 조건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최근 판지마을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캠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캠핑동호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시범캠핑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명동 일원에 민간업자의 오토캠핑장 조성에 대한 사업제안이 있었는데,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건전한 가족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_ 북구 지역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 도시 환경이 잘 어우러진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고급형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원주택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농소, 강동 일원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청장 답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개별적인 전원주택 외 대규모의 전원주택 단지 조성에 대한 실적이나 계획은 없는 상태이며, 대규모의 주택건설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5건), 도시개발사업(5건)과 공공기관(나)에서 추진하는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울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까지 총1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추진이 부진한 상태이므로, 전원주택단지의 추진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 질문일시 : 제139회 임시회(2013. 5. 6.)
- 질문요지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 문제점과 대안 모색

1. 우리 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우리 구가 해야 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하여 청소용역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가계산을 통해 산출된 대행료를 예산에 편성하여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도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구청에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997년도부터 16년 동안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이 예산으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청소구역 내에서 판매되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청소용역업체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은 여러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 총계주의 원칙) 제1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으로 누락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위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 1월 16일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청소용역업체로 하여금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근로조건 보호관련 약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보호 관련 약속서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근로조건 약속서를 청소용역업체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준수하고 있는데,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 25개 구에서 이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독립채산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6항제1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147호)에 따라 원가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환경부 고시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위 환경부 고시 제2011-14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가계산을 해도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 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서에는 계약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보증금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구의 경우는 계약금액이 안 써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2013년 2월 1일, 2013년 3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독립채산제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현행 ‘쓰레기 수수료 중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된다”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채산제는 여러 법률과 상충되는바 계약 방식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구청장 답변

우리 구에서도 현행 독립채산제가 예산은 절감되나 업체간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2014년 이후 계약방식에 대해 자체적으로 변경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에 대하여는 2013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후 통보되어 당해연도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식 변경의 방향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가치를 추구하고 업체간 임금격차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원가산정 용역 시 공동주책과 단독주책의 노동조건, 노동강도 등을 감안하여 노동자들의 기득권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업체간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2. 위탁업체에 따라 미화원의 임금 격차가 심한데 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위탁업체 현황을 보면, 춘산환경이 강동·효문·송정동 생활쓰레기와 강동·효문·송정동·양정·염포동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기업이 농소3동 생활쓰레기와 농소1·2·3동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현대개발은 양정·염포동 생활쓰레기를, 대화산업은 농소1·2동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인력 현황을 보면, 춘산환경이 총 15명으로 관리직 2명, 운전원 7명, 미화원 6명이고, 동천기업이 총 10명으로 관리직 1명, 운전원 1명, 미화원 8명이고, 대화산업이 총 9명으로 관리직 2명, 운전원 4명, 미화원 3명이고, 현대개발이 총 5명으로 관리직 1명, 운전원 3명, 미화원이 1명입니다. 춘산환경의 미화원들은 연봉이 3천5백여만원, 동천기업은 3천3백여만원입니다. 그러나, 대화산업은 2천백여만원, 현대개발은 1천구백여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업체별 관리직, 운전원, 미화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별 임금 격차가 심한데, 이를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

독립채산제 방식에서는 업체별 관리직, 운전원, 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가격에 포함된 제작비, 판매이금, 처리비를 제외한 수집운반비를 업체의 수익으로 가져가므로 임금을 업체별로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독립채산제에서 업체별 임금격차가 심한 이유는 아파트 밀집지역의 봉투판매량이 많은 업체는 수입이 많고,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지역에 봉투판매량이 적은 업체는 수입이 적어 임금수준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및 청소체계 개선방안 연구공역을 5월~6월중에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모든 걱정과 불신을 해소하고자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고 있으며,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최근 3년간 구청 지도점검 실적 및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된 점검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사항과 실제 사항의 일치여부, 우리 시 환경자원사업소에 적법 반입여부, 수집·운반차량의 허가여부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4개 업체에 대해 총 19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법령에 위반사항 없이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수시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최근 5년간 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

총 4개업체 중 2개 업체에서 추돌 및 접촉사고 15건과 업무상 우측 족관절 부상 1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업체별 휴게공간 보유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

총 4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휴게실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1개 업체는 휴게실과 샤워실 70.6㎡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규모가 적은 1개 업체는 휴게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향후 휴게실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는 추가확보를, 휴게공간이 없는 업체는 신설하도록 조치하여 대행업체 직원의 복리 증진에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행위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위탁업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귀포시는 2008년도에 대행업체 체제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했으며, 여수시의 경우 2013년에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 또는 공단으로 바꾼 후 청소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였으며, 생활쓰레기 관련 각종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지위가 상승함으로써 소속감이 강화되고, 자긍심이 고취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율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청소대행 업무를 폐지하고 직영체제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

장기적으로 청소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직영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계약 시 대행업체를 직영화 하는 방안, 직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과업으로 줄 계획이며 단계적 직영화 방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질문의원 : 이수선 의원
- 질문일시 : 제140회 제1차 정례회 (2013. 6. 20.)
- 질문요지 : 옥동농소간 도로구간 내 천마산 등산로 통과 Box 개설 요구

옥동농소간 도로는 총 연장 16.9km에 폭 20m 4차선 도로로 남부순환도로~문수로~오산교~태화~성안~가대~천곡~국도7호선과 오토허리 도로로 이어지는 사업기간 2008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국비 809억원, 시비 1,210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019억원의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북구와 중구, 남구로 연결하여 내부 순환 도로망을 형성하는 구간선도로 확충 사업의 일환이며, 체중 현상으로 만성적인 국도 7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심 우회도로입니다.

옥동농소간 도로구간 중 우리 구에 해당하는 구간은 2공구 성안·농소·천곡구간이며 8.9km 사업비 1,232억원입니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환경,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있었고, 2009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검증을 통과하여 2010년 6월 2공구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옥동농소간 2공구 공사는 차질 없이 국가예산이 편성되면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 옥동농소간 도로의 우리 구 관할 지역인 2공구 성안~농소 전 구간 도로 설계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설계도를 조사하던 중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천마산 등산로는 농소3동 지역의 4만 2천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와 울산 시민들의 근교 산행으로도 각광 받고 있는 등산로입니다. 주민의 애용에도 불구하고 옥동농소간 도로의 개설로 인해 등산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하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잘라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현대건설에 수차례 방문하여 등산객들의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무산되었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달천동 산 6번지 일원에 등산객이 다닐 수 있도록 통과 Box 설치를 울산광역시에 요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청 담당 공무원과 북구청 담당공무원, 현대건설 관계자와 제가 현장에서 만나 등산로 통과 Box 설치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침, 저녁의 이용객과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을 위해 통과 Box 내에 안전 조명장치도 같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노력들이 전혀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시와 즉각적으로 협의해서 천마산 등산로가 끊어지지 않고 통과 Box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조금 있으면 곧 부지 보상이 끝나고,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다시는 천마산 등산로 통과 Box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등산로 통과 Box 개설을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은 묵묵부답이고, 공사는 자꾸만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천마산 등산로가 옥동농소간 도로에 막혀 단절되지 않을지 심히 염려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연결하지 않고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도로 개설 시 동물의 이동 통로도 반드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동농소간 도로에는 천마산 등산로의 연결 통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등산로가 차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울산광역시의 북구의 행정에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천마산 등산로 통과 Box 개설 요구에 따른 구청장님의 대응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농소간 도로 횡단구간에 통과 Box가 만들어져 천마산등산로가 주민들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도모하는 행복한 산행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청장 답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총 연장 16.9km중 우리 구 구간은 총 8.9km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정율은 현재 약40% 정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지역은 천곡동 및 가대동 일원이며 천마산 일원 도로 개설 공사는 201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몇차례 요구한 설계변경등은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2014년 이 지역에 대한 도로 개설시에 지역주민과 우리 구와 협의하여 등산로 단절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암거박스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울산광역시장의 답변이 있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등산로는 확보 될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통해 등산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Ulsan Buk-gu Council Newslett



- 질문의원 : **이혜경 의원**
- 질문일시 : **제140회 제1차 정례회 (2013. 7. 2.)**
- 질문요지 : **울산 북구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하여**



21세기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어린아이도 다 알만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 매년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대규모 홍수, 가뭄 피해 등으로 전 세계가 지구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각 나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량을 늘리도록 의무화 하는 교토의정서를 1997년 채택하여 2005년부터 발효한지 8년이 되었습니다.

각 나라별 전기에너지의 재생가능 비중을 보면 전세계 평균이 20%이고, 캐나다 60%, 독일 71%, 노르웨이 96%, 일본 3.5%, 인도 9.9%, 필리핀 26.3%, 한국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 1.5%를 합쳐 1.9% 정도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재사용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2000~2009년 동안 전 세계는 추가 원전건설을 중단하거나 폐쇄하고 있어 원전 증가율이 2002년 444개에서 2009년에는 435개로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 세계는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관심을 돌려 매년 25%씩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인도는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력량의 30%를 핵발전에 의존하면서 총 23기의 원전을 가동 중에 있고, 추가 건설(5기)과 건설 예정 11기를 입안 중에 있어 전 세계의 환경 보호와 신재생에너지협약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도 의무할당제를 도입하여 전기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총 전기공급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여 매년 0.5%씩 10년 후인 2022년에는 10%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확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변화 추세와 다르게 우리나라 원전정책에는 변화가 없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울산대학교 청정자원순환센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울산은 태양광과 육상풍력발전의 잠재용량이 100mw이며, 태양광의 경우 정수사업소와 공장, 매립장, 종합운동장, 학교, 일반 건물, 공동주택 등에 설치할 경우 20mw이상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상풍력의 경우 동대산과 무룡산을 비롯하여 염포산 지역, 영남알프스지역, 서생지역이 풍력발전 가능 지역으로 80mw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울산 북구청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두고 동대산과 무룡산 구간 능선 10km에 2mw급 풍력발전기 20~30기를 설치하여 매년 40~60m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60mw 전력은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회사뿐만 아니라 2만8천~4만2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동 해상풍력단지는 정자, 산하 일원 2.5km 해상에 수심 40m, 7mw급 해상풍력발전기 28기를 설치하여 196mw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1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초대형 규모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강동 해상풍력발전과 동대산 육상풍력발전량은 1년간 약 14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용량으로 울산 총 가구373,633세대의 30%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면 화석연료사용과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기도 합니다.

울산은 월성원전(6기)과 고리원전(8기)으로부터 10km~30km반경 내에 위치해 있어 각종 암발생과 기형동물의 출산, 원전사고의 위험 속에 시달려오고 있습니다. 또 원전에 불량부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원전사고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생산되면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핵폐기물을 보관할 고준위 핵폐기장이 있는 양남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의 바람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의 노력에 발맞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성과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2012년부터는 전기공급자가 총 전력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 의무 생산하여 공급하고, 해마다 0.5%씩 증가시켜야 하므로, 정부에서는 대규모 발전소 건립을 통해 빨리 성과를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동대산과 강동 앞바다 풍력발전 사업이 대규모 자본의 의무할당제 이행에 따른 무리한 조처가 아니길 바라며, “전국 최대 규모의 발전소 건립만이 최고 좋은 정책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한 지역에 최대 규모로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소규모 발전소 건립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가정용 발전소, 마을 단위 중·소형 발전소를 건립하여 전력을 생산·공급하기 때문에 남은 전력을 이동시키기 위해 송전탑을 건립하거나, 주민 간 갈등 발생, 환경 파괴, 삶의 터전을 상실하거나 하는 문제는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_ 우선 1년여 동안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동대산과 강동해상풍력발전기 건설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답변

우선 원전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이혜경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십여년 동안 원전 폐기 운동을 펼쳐왔고, 지금도 원전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가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부분과 원자력의 편리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석 연료 사용으로 누린 풍족한 생활의 대가로, 지구상에는 매일 100여종의 동·식물이 멸종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도 우선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엄청난 처리비용은 후대에 빚으로 떠 넘기고 있으며, 만일 후쿠시마와 같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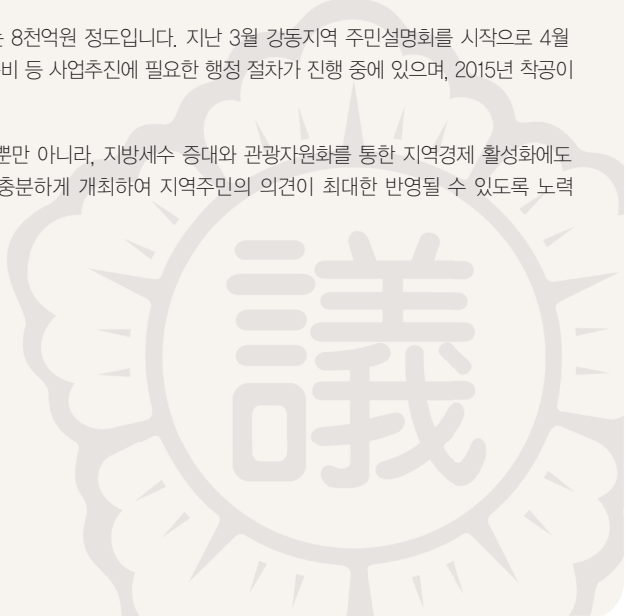
이에 따라, 향후의 에너지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며, 우리 구의 시책도 이에 맞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해 바람과 태양의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주민과 기업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대산 육상풍력과 강동 해상의 풍력발전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산풍력발전은 2MW짜리 발전기 20기 정도를 설치하여, 총 40M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5월부터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한국동서발전과 울산대에서 각각 계측기를 설치하여 1년간 바람자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바람 자원 조사와 함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14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는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동해상풍력발전은 총 196MW 규모로 7MW짜리 발전기 28기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8천억원 정도입니다. 지난 3월 강동지역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 사업시행자인 SK건설, 한국전력기술과 사업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계측기 설치 준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착공이 되면 2017년부터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말씀드린 두개소의 풍력발전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증대와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착공에 앞서 주민공청회 등을 충분히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동대산 일원 능선 10km에 건설 예정인 20~30기 풍력발전 건설로 인하여 동대산 자연습지와 생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구청장 답변

전체적인 사업 구간은 10km에 이르지만, 발전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개소당 250평방미터 정도에 불과하고, 공사 시에도 이미 개설된 임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습지와 생태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시에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풍력발전소로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발전소 주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강동 산하 앞바다에 건설계획을 두고 있는 28기 풍력발전기와 전기 송신을 위해 해저 30km와 지상 6km로 총 36km에 달하는 송전선로 신설로 인근 주민들의 전자기파 피해와 발전기 건설 공사기간 2~3년 동안 어업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문제 등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답변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설치하는 송전선로는 해저와 지상 모두 지중화 하여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 보상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전문가와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협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원전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은 북구 주민뿐 아니라 울산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대체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높이는 북구청이 더 나아가 정부에 단계적으로 원전 폐쇄를 요청하고 현재 수명연장하고 있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에 대한 가동중단 약속을 받아내어 주민들이 안심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답변

주민들이 안심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전폐쇄 및 가동중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원전폐쇄 요청 및 정부에 대한 단계적 원전 폐쇄 요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한다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뜻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 후에도 주민들의 증지를 모아 위험천만한 핵에너지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방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풍력사업과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발전소 건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기업체의 지붕을 활용한 녹색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곡, 중산 등 20개 기업체가 태양광설치를 동의하여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며, 연내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조성 중인 매곡 2·3차, 중산2차 산업단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녹색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아울러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제1호 시민햇빛발전소도 건립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호 발전소 건립을 계기로 각 운동장 활용 등 마을단위 소형발전소 건립을 점차적으로 확대 해 나갈 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공공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이해경 의원
- 질문일시 : 제138회 임시회(2013. 2. 19)
- 질문요지 : 시행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 체육의 균형 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북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출범한 울산 북구는 10만 인구에서 지금은 19만에 육박할 만큼 괄목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신생도시 북구는 도로나 문화, 체육, 복지 등 사회적 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복지에 대한 욕구가 어디보다 높습니다.

그간 주민들은 문화적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공간을 만들어 운용한지 이미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문화공간은 주민들에게 작은도서관, 공동체문화공간, 주민사랑방, 공동육아의 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북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만드는 북구만의 특별한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였고,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을 정도로 작은도서관이 주민생활에 밀착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북구 행정은 부족한 재정에도 중심도서관이 없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2003년 기적의 도서관에 이어 권역별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구립도서관 6개관을 건립하였으며,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권역별 도서관을 통해 마을공동체문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현재 민간 작은도서관에 도서관구입비뿐 아니라, 9개소에 시설개선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도서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에 있는 교육청 도서관이 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 존재하고 있고, 연면적과 장서량, 사서 인력, 재정지원 등은 북구 중앙도서관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권역별로 들어서 있는 북구의 도서관은 규모면에서 볼 때 교육청도서관과 비교하면 모두 작은 도서관에 속합니다. 북구에는 다른 구처럼 큰 규모의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구에 있는 도서관들은 유명작가를 초청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공간상의 문제로 주변의 학교강당을 빌려 행사를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또한 시립대표도서관이 북구 중심도서관으로 자료, 정보, 교육, 인적자원 육성 등 각 민간, 구립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는 각종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어 대표도서관에 대한 북구민의 요구와 갈망이 높았습니다.

2011년 시립미술관의 중구 결정에 이어 시립도서관의 남구 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북구 주민이 느끼는 소외감은 큼니다. 박맹우 시장님 임기 11년 동안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 문화 복지시설이 북구에는 하나도 들어서지 않았습니니다. 태화강과 그 주변의 공원을 제외하고도 현재 남구에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문수축구경기장을 비롯해 15개소, 중구에는 동천체육센터,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구에는 울산박물관, 울산과학관, 울산문화예술회관, 가족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중구에는 여성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향후 들어설 시립미술관까지 총 23개의 시설이 중구와 남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부도서관은 2014년 법원 신청사가 완공되면 현 법조청사를 리모델링해 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구에는 큰 규모의 시립대표도서관과 남부도서관이라는 두 개의 대규모의 도서관이 생기게 됩니다. 전체 23개 중에 이미 들어선 시설은 제외하더라도 새로 건립되는 한 두개 이상은 북구나 동구에 있어야 지역 균형 발달의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정된 시립대표도서관도 남구에 들어선다고 하니 북구 주민들은 소외감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 행정은 울산시민의 삶을 골고루 돌보고,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외된 지역은 없는지 살피고 고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공평한 행정이고, 민선 시장의 역할입니다. 이번 시립도서관 부지선정 기준에서도 도서관 인프라, 도서관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주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접근성 등 사회 경제적 여건은 고려되지 않았고, 토론회 한번 없이 행정 편의적,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에 대해 또 한번 분노하는 것 입니다.

시장님! 향후 시 행정 집행에 있어 북구주민들이 '같은 세금 내고 왜 북구는 소외시키는가?' 라는 분노에 찬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균형 있는 행정 집행을 기대하며 북구 주민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Ulsan Buk-gu Council Newslett



- 질문의원 : 정운석 의원
- 질문일시 : 제138회 임시회(2013. 3. 4)
- 질문요지 :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정운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북한 핵실험 규탄과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5분 자유발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최근 자행한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세계의 평화공존 법칙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 시민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과 온 세계인의 비난과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한반도의 역사적 죄인으로 낙인 찍을 것이며, 결국 북한 스스로 초래한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원칙이자 1991년 남북합의서에서 천명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무력을 동반한 남북간 위기를 증폭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 전 세계가 열망하는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핵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북한 핵실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중단하고, 핵실험이 울산 북구 주민의 안전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북구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 질문의원 : 이수선 의원
- 질문일시 : 제139회 임시회 (2013. 5. 6)
- 질문요지 : 연암베드민턴장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저는 2013년도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있어 연암베드민턴장 시설 개선비로 8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해 예산의 낭비성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을 요청하였으나, 통합진보당 의원님들의 수의 논리에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4월30일 지역 일간신문에서도 연암 실내 베드민턴장 신축의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연암베드민턴장은 2008년 무릉테니스장, 연암베드민턴장, 연암족구장을 포함한 사업비 5억5,000만 원이 사용되어 실내 베드민턴장 6면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은 지 5년도 안된 실내 베드민턴장을 철거하고 8억 원을 들여 새로 신축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반대하며, 필요하다면 약간의 보수와 편의시설 향상을 주장하며 8억 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회기 도중에 정회를 하고 현장에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암베드민턴장은 철거할 만큼 시설이 노후화되지 않았고, 베드민턴을 즐기기에 안전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천막 또한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바닥 또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보수와 시설 개선으로 베드민턴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잘 운영되고 있는 멀쩡한 베드민턴장을 5년도 채 안되어 철거하고 8억 원을 들여 신축할 게 아니고, 그 예산으로 다른 곳에 베드민턴장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예산이지만 국민의 혈세입니다. 구청장은 국민의 혈세를 예산 낭비가 아닌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8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특정 동호회의 주장만 듣고, 예산 투입의 적기와 적정성은 무시한 채 선심성 사업으로 일방 통행하는 구청장의 요구와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북구의회에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혀두고자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길 희망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5분 자유발언

Ulsan Buk-gu Council Newslett



- 질문의원 : 정윤석 의원
- 질문일시 : 제140회 제1차 정례회(2013. 7. 2)
- 질문요지 : **이제는 동천강이다**



태화강은 울산시민에게 공지와 더불어 포근함까지 더해주는, 그야말로 울산의 젖줄입니다.

한 때는 산업도시 울산의 성장통이기도 하였던 태화강이 친환경 생태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휴식처로 한껏 제 역할을 다하는 데는, 그 동안 울산 시민들의 관심과 의식변화는 물론 울산시청 공무원 12명을 중심으로 연간 46억여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태화강관리단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와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 용역이 큰 몫을 했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태화강의 제1지류인 동천강도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천강은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괴리리 백두대간의 토함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시·도 경계를 지나 울산시의 동측을 북에서 남으로 관류하여 태화강에 합류되는 하천으로, 본류 전체 26.3Km 중 울산구역이 13.9Km이며, 평균 하폭은 110~250m에 이릅니다.

주요 유입 지천인 입실천, 약수천, 천곡천, 매곡천, 호계천, 상안천, 시례천, 창평천, 약사천의 9개 지천에 상안교, 동천교 등 13개의 교량과 천곡보, 신담보 등 7개의 보가 있는 동천강은 시례교에서 내항교까지 좌안은 북구, 우안은 중구지역입니다.

그러나, 양쪽의 둔치는 확연하게 달리 관리되고 있음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서는 강변에 야외수영장 공사가 한창이고, 북구의 매곡천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3.2km구간에 총사업비 45억원을 들여 하천 환경정비가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최근, 북구 상안동에 농소 수질복원시설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1,5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써 중구, 북구의 생활 오·폐수를 1급수로 정화하는 이 시설이 2016년 2월 준공되면, 건천인 동천강에 일일 약100,000톤의 청정수를 신담교로 펌핑하여 삼일교, 외술교, 동천교, 내항교를 지나 태화강으로 흐를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시원한 일입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경영의 근간을 이루어왔고, 민생 정치의 요체로 비유되기도 한 바, 동천강 유지·관리는 우리의 삶의 질, 그리고, 후세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천강은 치수적으로 양호한 수질과 유지유량을 확보하고, 지천의 관리 및 생태계 복원,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쾌적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갈대 군락지 및 조류 서식지 보전·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생태계 회복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역사 탐방로 조성계획과 문화유적지를 복원하여 역사성 회복과 역사, 문화이벤트를 계획하고, 꽃길·꽃단지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근감을 주는 주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의 산책로와 연결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여가 활동 장소 제공과 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출·퇴근 등 이동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동천강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울산광역시와 북구, 그리고, 중구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와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년간 연구한 울산발전연구원의 참여와 역할도 요구되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



평생학습도시 동판 제막식 (2013. 1. 21)



천곡문화센터 개관식 (2013. 1. 22)



명촌 장난감도서관 개관식 (2013. 1. 31)



자살예방센터 개소식 (2013. 3. 19)



양정소공원 준공식 (2013. 3. 20)



제68회 나무심기 행사 (2013. 3. 21)



제전 해녀의 집 개소식 (2013. 4. 17)



어린이날 큰잔치 (2013. 5. 5)

사진으로 보는 의정



제9회 쇠부리축제 개막식(2013. 5. 10)



쇠부리 비빔밥 만들기(2013. 5. 12)



울산북구의 책 선포식(2013. 5. 28)



냉천마을 전통 모내기 시연행사(2013. 5. 30)



제2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성공기원 주민자치위원 결의대회(2013. 6. 4)



제2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박람회(2013. 6. 8)



제12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성공기원 통장 한마음대회(2013. 6. 14)



명촌 물놀이장 개장식(2013. 6. 26)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10:00 ~ 17:00 (토, 공휴일 제외)
방 법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내 용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전문위원실(5층)에서 접수
 전화 : 241-8982 팩스 : 241-8989

농소2·농소3동	농소2·농소3동	효문·양정·염포동	농소1·강동·송정동	농소1·강동·송정동	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의 장	부 의 장	운 영 위 원 장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윤 치 용	이 수 선	강 진 희	안 승 찬	이 흥 결	정 윤 석	이 혜 경
의장실 : 241-8900 010-5231-7321	부의장실 : 241-8910 010-2833-1929	사무실 : 241-8950 010-8610-4748	사무실 : 214-8920 010-6587-1287	사무실 : 241-8930 010-2950-3763	사무실 : 241-8940 011-835-6035	사무실 : 241-8960 010-9448-1364

※ 의회 방문 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담시간을 사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241-8982
 F A X 241-898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층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



2013 Ulsan Bukgu Council Newslettr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인이신 주민여러분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